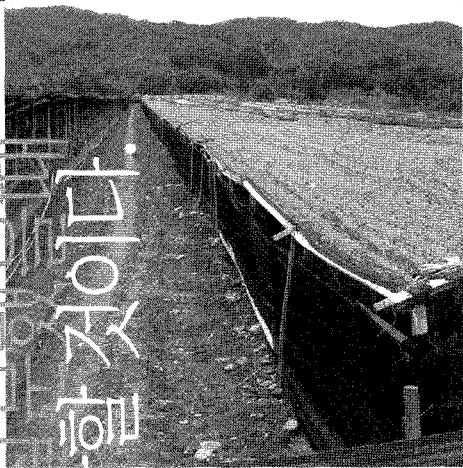


고려인삼의 미래 안전성에 달렸다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고려인삼의 미래 안전성에 달렸다. 기인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농식품은 무엇인가?라고 한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은 인삼과 김치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근대에 들어 소주, 라면이 한국의 대표적인 농식품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지만 인삼과 김치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농식품이었다.

또한 해외수출 단일 품목으로도 인삼과 김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작년에 농식품 20억불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데에는 김치 1억불 초과달성, 그리고 인삼 수출이 '03년 67백만불에서 '04

년 89백만불로 급진적으로 성장한 데 기인한바가 크다.

고려인삼 수출은 1990년 165백만불을 정점이었으나 저가의 중국삼 공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55백만불로 줄었으나 200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고려인삼이 활력을 되찾은 데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웰빙바람, 고품질·안전 인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고려인삼 시장을 잠식했던 저가의 중국삼이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문제가 된 점도 호기로 작용하였다.

최근 WTO/DDA협상타결로 인한 인삼시장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고 인삼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대책 수립 과정에서 향후 인삼/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품질이 좋은 것(30.7%), 안전성이 높은 것(16.5%), 가격이 저렴한 것(12.7%),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10.4%), 복용이 간편한 것(10.5%), 브랜드가 있는 것(4.2%)순으로 나타났다.

고려인삼의 품질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삼의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고려인삼의 국내 소비 증진과 세계시장 석권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고려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삼경작농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고려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 인삼 경작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강화

우선 인삼경작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 강화이다. 이는 인삼

고려인삼의 품질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삼의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고려인삼의 국내소비 증진과 세계시장 석권



안전성 확보의 최일선에 인삼경작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인삼경작 농가의 의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삼조합별 안전성 자체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안전성에 대한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과 함께 인삼적용 농약품목, 적용 병충해를 설명해 놓은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개발 보급하여 안전한 인삼재배에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인삼 재배기술 보급 및 수확 전 안전성검사 강화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삼의 생산, 제조,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 전단계에서는 토양검정, 수질분석, 퇴비사용, 연작장해 등에 관한 예정지 관리표준지침을 상반기중에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표준인삼경작 방법에 친환경·지역별 재배방식을 가미하여 보완하여 농가가 인삼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모형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점수를 2004년도 211점에서 2005년에는 500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2013년에는 2,500점까지 확대하여 1ha당 1점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약잔류허용검사 의무 실시

제조·유통단계에서는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삼류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토록 하고 있다. 미검사품, 불합격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자에게는 종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인삼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삼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에 의한 세척수삼을 확대보급하여 생산지, 생산자 등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므로써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검사품 및 부적합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소비자 홍보

소비단계에서는 미검사품 및 부적합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자 홍보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인삼은 검사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삼 부정유통 및 미검사품이 불법 유통되는 데에

는 기존 검사필증 디자인이 각기 다르고 검사필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필증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 올해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통일된 검사필증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인삼계열화사업을 통해 고품질· 안전 인삼 생산

정부는 인삼의 전근대적인 인삼 생산-유통-가공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삼계열화 사업을 2004년도부터 인삼조합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인삼재배이력 기재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인삼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인삼을 재배이력기재 확인과 농약검사 후 수매하는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안전 인삼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삼을 원료로 가공·제조하여 해외수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연차적으로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인삼생산의

40%이상을 담당하도록 추진하여 우량원료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축소 등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삼 GAP 사 업 및 이력추적제도 도입

정부는 2010년까지 인삼 GAP 사업(우수농산물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과 인삼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한층 더 우수하고 안전한 인삼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에 인삼GAP 표준재배법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인삼 GAP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FID(전자태그 또는 무선주파수 확인시스템)으로 불러오는 전자칩을 이용한 농산물 이력 검색기술을 체계화하고 2010년까지 실용화 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에 들어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 빛과 그림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병존하여 일어나고 있다. 생활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풍요로워



졌지만,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건강식품의 세계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최근엔 당뇨, 고혈압, 암 등 현대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웰빙식품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고려인삼이 탁월한 보혈 및 약리작용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과 더불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보약으로 먹은 인삼이 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근 농약이 다량 검출된 중국인삼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안전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저가의 저품질 외국삼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국내 인삼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